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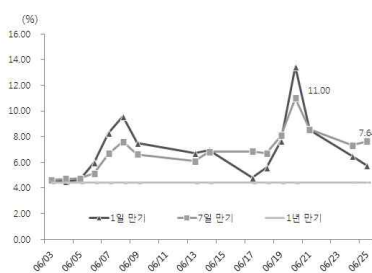
최근 중국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 6월초부터 중국 은행간 단기자금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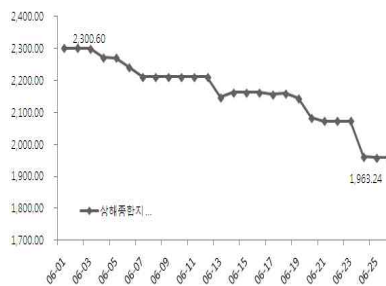
- 중국 상하이은행간대출금리(SHIBOR)¹⁾가 6월 초부터 상승해 20일 11.0%(7일 만기 기준)로 급등했다가 25일 7.6%까지 하락했지만 정상 수준(2~3%)²⁾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6월 24일 상하이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5.3% 급락한 1963.24로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2000선이 붕괴된 수치임.
- 6월 26일 은행 간 채권시장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19.9% 급감한 7,462억 위안에 그쳤으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7일 6.15위안 수준에서 24일 6.18위안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임.

〈그림 1〉 상하이은행간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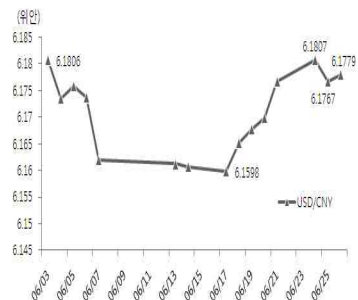
자료: 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그림 2〉 상하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그림 3〉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자료: 중국외환거래센터.

1) 상하이 은행 간 대출 금리(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는 영국 리보(LIBOR)처럼 중국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말함.
 2) 상하이 은행 간 대출 금리(7일 만기 기준)는 이번 금융시장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 6월 이전까지 2~3% 구간에 머물렀음.

- 시중은행들의 자금수요가 급증했지만 중국인민은행이 3월부터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활용하던 역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중단했고 6월 중순에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발행한 것이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됨.
 - 은행의 재테크 상품³⁾ 만기 도래 및 법정 지급준비금 심사, 단오절 현금수요 증가와 기업 세금 납부 시기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의 자금수요가 급증하였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미국의 양적완화(QE) 중단과 출구전략 예고에 따른 과도한 핫머니의 이탈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6월 25일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안정된 경제성장을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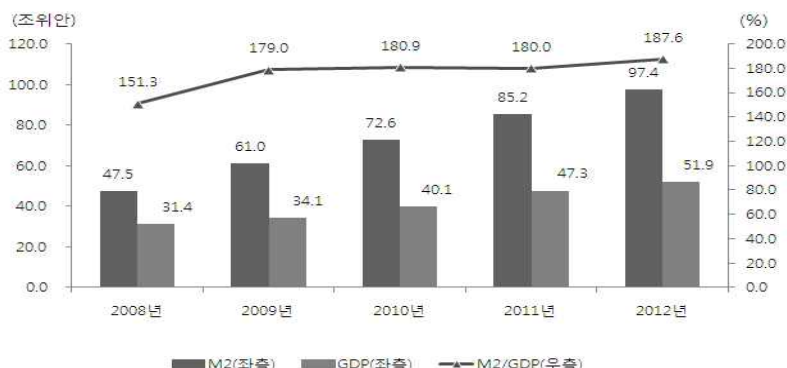
-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광의통화(M2)가 97조 4,000억 위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이 187.6%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
- 중국인민은행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⁴⁾ 및 신용팽창⁵⁾이 안정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성장방식 전환과 산업 고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음.
 - 앞서 6월 24일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이 대출확대를 조절하고 유동성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 간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변화를 자세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성명하였음.
- 일각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금융개혁을 위해 시중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에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재테크 상품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흡수해 자금운영 만기가 되면,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투자형 금융상품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

4)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 장부 외 활동 및 은행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창출된 신용으로만 구성되었으며, S&P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인 약 23조 위안으로 추정됨.

5)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용 규모는 지난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5%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07%까지 상승하였음.

〈그림 4〉 중국 M2, GDP, M2/GDP 비율 변화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

■ 주요 투자은행은 이번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중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은행 재테크 상품의 원리금상환, 법정 지급준비금의 보완, 기업 세금납부 일정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금융시장 단기자금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CICC)과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기존 7.7%와 7.8%에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7.5%보다 낮은 7.4%로 하향 조정하였음.
 - 앞서 중국인민은행이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단기간에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 또한 앞서 중국 리처창 총리는 지난 달 독일에서 중국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해 저성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한편, 이번 중국 금융당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 그러나 전체 무역 중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인 우리나라는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012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우리나라 대외 수출의 24.2%, 수입의 16.8%를 차지하였음.

-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자금조달 문제에 유의해야 할 것임.

(WSJ, FT 등)